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다. 이런 것에 대한 수호자 역할을 자처한 것이 칸트라면, 이후 칸트가 어떻게 수호자 역할을 했는지 혹은 칸트의 입장이 왜 좋은지에 대한 옹호의 관점이 이어질 것 같다. 왜냐하면 현대의 시각에서 쓰여진, 현대 사회에서 바라본 칸트이기 때문이다. 칸트가 수호한 이념들을 바탕으로 세워진 현대 국가의 기틀을 스스로 걷어찰 리가 없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근거는 '안전, 평화, 자유'라는 단어에서 시작된다. '칸트'를 위주로 잡게 되면 힘들어지고 뒤가 궁금해지지도 않는다. 첫 문장을 읽는 이유는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배경지식으로부터 호기심을 마련하려는 것임을 잊지 말자.

He believed that human societies were moving towards more rational forms regulated by effective and binding legal frameworks because only such frameworks enabled people to live in harmony, to prosper and to co-operate.
그는 믿었다, 인간 사회가 더욱 이성적인 형태로 나아가고 있음을, 효과적이고 구속력 있는 법적인 틀로부터 규제되어, 왜냐하면 오직 그런 틀만이 사람들이 조화를 이루고, 번영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첫 문장을 읽었던 방식 그대로 단어의 맥락과 배경지식을 잘 살려서 글을 이해해 보자. 법은 사람들이 조화를 이루고, 번영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사회를 규제하는 방식이라는 것은 상식이다. 그렇지 않다면 법이 왜 있겠는가. 칸트는 그런 법적 틀을 통해 사회가 점점 더 진보하고 있다고 생각하나 보다. 법을 통해 더 발전된 사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다고 칸트는 믿었다. 이렇게 정리!

However, his belief in inevitable progress was not based on an optimistic or high-minded view of human nature.
그러나, 이런 필연적인 과정에 대한 그의 믿음은, 낙관적이거나 고결한 인간 본성에 기초한 것이 아니다.

On the contrary, it comes close to Hobbes's outlook: man's violent and conflict-prone nature makes it necessary to establish and maintain an effective legal framework in order to secure peace.
반대로, 그건 홉스의 관점과 가까웠다; 인간의 난폭하고 갈등 유발적인 본성이 필요하게 한다, 제정하고 유지하는 것을, 효과적인 법적 틀을,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법을 통해 사회를 진보시켜 나가는 일련의 과정은 인간이 착해서가 아니라 악해서에 가깝다고 한다. 악한 사람들의 욕망을 제어하기 위해 규칙과 제도, 법이라는 틀(framework)을 마련하고 유지한다는 주장이다. 이것도 어찌 보면 당연한 말이다.

We cannot count on people's benevolence or goodwill, but even 'a nation of devils' can live in harmony in a legal system that binds every citizen equally.
우리는 사람들의 자비심과 선의에 의존할 수 없지만, 악마의 나라도 모든 시민들을 동등하게 묶는 시스템 속에서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다.

앞선 내용의 부연이다.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인간의 선한 본성이 아닌, 법과 제도를 통해서다.

Ideally, the law is the embodiment of those political principles that all rational beings would freely choose.
이상적으로, 법은 모든 정치적 원칙의 구현이다, 모든 합리적인 인간들이 자유롭게 선택할.

If such laws forbid them to do something that they would not rationally choose to do anyway, then the law cannot be _____.
만약 그런 법들이 금지한다면, 그들이 이성적으로 선택하지 못할 일들을 하지 못하도록, 그렇다면 법은 그들의 자유에 대한 제약으로 여겨질 수 없다.

지금까지는 배경지식과 단어의 긍정적인 뉘앙스를 통해 헤쳐왔지만, 이 난해한 문장을 해석해야 한다. 문장 단위로 의미를 최대한 살려서 해석해 보자. 이상적으로 법들은 자유롭고 합리적인 이성적 존재인 인간이 자유롭게 선택한, 정치적 원칙의 총체이다. 이상적인 상황에서는 법이라는 것도 사람들이 상호 합의를 통해 만들어진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런 법들이 그들이 이성적으로 선택하지 못할 일들을 하지 못하도록 방지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지? 이성적으로 선택하지 못할 일들이라면 아무래도 범죄 행위 따위의 부정적인 사건들이 떠오른다. 범죄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방지한다는 건 무슨 말일까? 생각해 보면 이게 곧 법이다. 그럼 법들이 법대로 한다는 것은, 같은 말의 반복이다! 이성적인 존재들이 자유롭게 선택한 법이 제 역할을 다하고 있다는 말이니까. 그럼 뒤에 이어져야 할 말은 무엇일까? 법이 법대로 이루어지고

있다->잘하고 있네! 식의 긍정적으로 앞 문장을 받아줘야 할 내용이 와야 할 것이다. 이때 부정어구 cannot 을 조심해서 생각하면, 법들이 자유에 대한 제약으로 여겨질 수 없다 라는 3번 선택지가 적절함을 알 수 있다.

여기에서 추론이 한 스푼 더 들어가는데, 자유에 대한 제약으로 여겨질 수 없다는 3번 선택지가 들어가기 위해선,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인간이 스스로의 자유를 제약할 리가 없다는 것이다. 아니 법은 제 자유를 제약하는데요? 라고 생각이 든다면, 법의 목적이 결국 앞서 지문이 제시한, 안전과 평화를 더 잘 보장해 자유를 더욱 확보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반박할 수 있다. 해당 지문에 관점에서 법이 나의 자유를 제약한다는 내용은, '그건 자유를 제약하는 게 아니라 방종을 제약한다' 라고 비판할 수 있는 셈이다. 여기서 더 나아가면 칸트와 홉스의 사회 계약론까지 들어가야 해서 과하다 생각하고, 우리가 캐치해야 할 지점은 나만의 말로 바꿔내야 한다는 점!

수능 영어는 문장의 표현이 난해하고 현학적이나, 다룰 수 있는 주제의 깊이 자체는 한정적이라는 점을 늘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이 말을 나의 언어로 번역할 수만 있다면 이후는 일사천리다. 늘 호기심을 가지고 글을 읽고, 나의 말로 바꾸어 이해하려고 노력하자. 이 과정이 곧 사고력이다.

①regarded as reasonably confining human liberty
②viewed as a strong defender of the justice system
③understood as a restraint on their freedom
④enforced effectively to suppress their evil nature
⑤accepted within the assumption of ideal legal frameworks

합리적으로 인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사법 체계의 강력한 옹호자로 보일 수 있다!
그들의 악한 본성을 억압하기 위해 효과적으로 집행될 수 있다!
이상적인 법적 틀의 전제 속에서 받아들여질 수 있다!

그리고 빈칸 문장 앞의 cannot 을 조심하자.

36.
We usually think of a clock as a physical thing, like an alarm clock or a wristwatch. But a clock is really a process embodied in a machine, and the nature of that process is repetitive.